우리 문단의 향연, 문인들의 축제

—《송화강》잡지 계림문화상 등 문학상 시상식 할빈서

《송화강》잡지의 상상시문학상·한춘문학상·계림문화상 세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19일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서 개최되며 북방 문단의 향연을 펼쳤다.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리춘실 관장, 할빈시조선족제1중학교 강혜숙 교장, 석연 부교장, 흑룡강신문사 전임 사장 겸 총편집 홍만호, 할빈시연예그룹 전임 리사장 서학동,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전임 관장 전경업, 《도라지》잡지 김향란 주필, 연변대학 김호웅교수, 김성우시인, '계림문화상' 후원자인 북경오성과학기술유한회사 허춘광 사장 등 관계자들과 수상자 등 4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송화강》잡지 최미령 부주필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강설봉공연팀의 플류트(长笛)연주로 막을 열었다.

리춘실 관장은 축사에서 흑룡강성의 유일한 조선어 순문학잡지인 《송화강》은 1959년에 창간되여 60여년간 조선족 문단의 풍향계로 자리잡고 흑룡강성 나아가서 전국의 조선족 문인 양성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송화강》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인 력대의 지도부와 《송화강》잡지 관계자, 조선족 문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시에 어려운 와중에 선뜻 후원해준 허춘광 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상자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달했다.

흑룡강성 계동현 출신인 북경의 조선족 기업가 – 허춘광 사장은 "살아오면서 잊고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하고 견지해야 할 것이 분명해진 시점"에서 '계림문화상'을 《송화강》잡지에 둥지를 틀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물심량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 일행 단체 기념촬영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전경업 전임 관장은 축사에서 《송화강》잡지 문학상 시상식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자리로서 조선족 문인들의 축제라고 했다.

이어 리춘실 관장이 허춘광 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송화강》잡지 리호원 주필이 세 문학상의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23년 '송화강-상상시문학상'에는 방순애의 〈생의 걸음〉이 가작상으로 선정되고 2023년 '한춘문학상'에는 강어금(필명 강시나)의 〈바다의 온도〉가 대상으로 선정되였다. 제8회 '계림문화상'에는 류선희의 〈8월의 안부〉가 대상으로, 홍만호의 〈나이테〉와 주련화의 〈마흔다섯 '자화상' 지금이 좋다〉가 금상에, 심명주의 〈내가 좋아야〉, 오경희의 〈눈섭〉, 천숙의 〈쌍화(双和)의 삶〉이 은상에, 박철산의 〈봄에 지는 락엽〉, 김홍매의 〈사라져가는 것들〉, 배영춘의 〈지혜와 수양의 부족〉, 권진홍의 〈'애'에게서 보여지는 심리〉가 우수상에 선정되였다.

리호원 주필이 '송화강-상상시문학상' 심사평을 하고 김성우시인이 '한춘문학상' 심사평을, 김호웅교수가 '계림문화상' 심사평을 했다. 김호웅교수는 생태의식의 각성, 삶에 대한 성찰, 녀성의 글쓰기와 유모아와 위트란 3개 부분으로 수상 작품들을 심층 분석하여 참가자들에게 많은 계시를 주었다.

배영춘, 심명주, 주련화, 방순애, 강어금 등 수상자들은 수상소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십년간 조선족 문인들에게 작품 발표와 수상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는 《송화강》잡지의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향후 우리 문학의 진흥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시랑송과 기악 연주 등 문예종목 공연으로 문학과 예술의 향연을 장식하며 아쉬운 막을 내렸다.

/ 흑룡강신문

중국 조선족 농악무 공익 양성훈련 연길서

연길시문화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중국 조선족 농악무 제1기 공익 양성훈련이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연길시에서 있었다.

이번 공익 양성훈련에는 제남, 청도, 연태, 심양, 할빈, 단동, 료양, 연변 등 국내 도시와 일본에서 선발된 무용전문 지도교사 40여명이 참가했다.

김춘영 부관장과 김설화 문예부 주임이 직접 장고춤과 원북춤 지도 임무를 맡았다. 두 지도교사는 인내심을 갖고 양성 참가자들에게 무용 자세를 가르쳤다. 또한 연변가무단과 연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조선족 무용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조선족 전통문화에 대한 정감을 끌어올리게 했다.

이어진 문예공연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배운 장고춤, 원북춤 등 무용 기예를 자랑하며 문화관 사업일군들과 지도교사의 긍정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참 행운이예요. 연길시문화관 전문 지도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제대로 무용 동작을 배웠어요. 조선족 전통문화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라며 연길시문화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패넌트를 전달했다.

홍미선 관장은 양성 참가자들의 겸손한 학습태도를 충분히 긍정하며 "이번 공익 양성훈련은 조선족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다."면서 참가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조선족 농악무를 전승, 보급하는 데 노력할 것"을 부탁했다.

/ 료녕신문

강소 양주 '최치원기념관' 업그레이드 재개관

– 한국 최씨 후손들 양주에 와 제향식 참석

10월 15일은 양주시 '중한 친선교류의 날'이였다. 이날, 개조 및 업그레이드된 후의 강소성 양주시 최치원기념관이 개관되였다. 160여명의 한국 최씨 후손들이 이곳에 모여 선조 최치원 제향식에 참석, '중한 교류의 제1인'이라고 불리우는 최치원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최치원은 한국 최씨 종친의 선조이자 중한 친선 교류 력사에서의 걸출한 대표이다. 그는 양주에서 5년간 관리로 지내고 《계원필경집(桂苑笔耕集)》을 저술하여 중한 문화교류를 위해 중대한 기여를 했다. 2007년 10월, 최치원의 이름으로 명명된 기념관이 양주에서 개관되였다.

양주시 속강 – 수서호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 주임 류위국은 "2016년, 최치원기념관이 속강 – 수서호풍경명승구관리위원회에 획분되여 관리를 받게 된 후 우리는 자금 투입을 늘여 기념관 및 주변 환경 개조 향상 공정을 실시하여 최치원광장, '인백기천' 비정, 최치원공원 등 경관을 신축했다. 올해 또 200만원을 투입하여 최치원 기념당과 기념관의 기본 진렬에 대한 전면적인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래빈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1년이래 한국 경주최씨중앙종친회는 매년 양주를 찾아 최치원을 제향하고 있는데 이미 양주와 경주의 친선 교류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양주와 경주최씨중앙종친회 친선교류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주시와 경주최씨중앙종친회는 끊임없는 문화교류를 통해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바 한중 친선 관계의 상징이 되였다." 한국경주최씨중앙종친회 회장 최천규는 "이 플래트홈을 빌어 양주시와 경주최씨의 관계를 승화하여 한중 량국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주 최치원기념관 관장 리빈은 "최치원이 고성 양주와 맺은 인연은 이미 천년의 력사적 시공간을 뛰여넘는 소중한 기억으로 변해 량국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졌으며 아울러 중한 친선 교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 인민넷

국가 1급 감독 박준희 타계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전 영상부 주임이며 국가1급 감독, 씨나리오, 제작인이였던 박준희가 2024년 10월 19일 12시 15분 병환으로 심양시에서 7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내가 떠난 뒤 부고를 내지 말고 영결식, 추모식을 하지 말며 가족장을 치르고 유골을 연길에 묻어달라."는 박준희의 생전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지난 21일 연길에서 가족장으로 수장(树葬)을 치렀다.

박준희는 림종을 앞두고 연변텔레비죤방송총국, 장영그룹제2영상유한책임회사를 비롯한 생전의 직장, 학교, 은사, 동료, 친구, 가족, 친지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의 마음을 글로 남기였으며 적당한 시기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희 감독은 1954년생이며 1987년도에 상해희극학원 영상감독전공을 졸업한 후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영상부 주임, 감독과 장춘영화촬영소의 씨나리오, 감독, 제작인을 력임했다.

박준희 감독은 1986년부터 《공공뻐스 영탄곡》, 《철인 왕진희》, 《싸움터의 진달래》, 《우리 선생님》, 《태양을 향하여》 등 다수의 텔레비죤극과 영화의 씨나리오와 감독을 맡았다. 그가 씨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맡은 《사랑의 종소리》는 전국류재아동공익편상을 수상했고 다수의 작품들이 전국 '비천'컵, '준마'컵 등 상을 수상했다.

/ 안상근기자

도시문화

석유도시 대경과 대경시박물관

▲ 대경시박물관에 전시된 화석군

대경 하면 우리는 대경유전과 철인정신을 떠올리게 된다. 하다면 대경시박물관은 어떠할가.

거대한 매머드(猛犸, 毛象) 화석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머리를 치켜든 2구의 '제4기 매머드 화석'이 제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또 코뿔소, 동북들소, 하이에나, 늑대… 형형색색의 화석이 모여 선사시대 동물의 시각의 향연을 펼친다. 바로 대경시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중국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전문적인 매머드·코뿔소 동물군 화석이 소장되여있다. 이곳은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으며 품질이 좋은 박물관중의 하나로 중국 국내 동북 제4기 포유류 동물 화석 계통 수집의 공백을 메웠다.

석유, 철인정신, 박물관외에도 대경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가.

■ 호수의 도시 ■

217개의 호수가 있는 대경은 명실상부한 호수의 도시다. 란덕호, 려명호, 빈주호, 삼영호, 련환호, 명호…

"갑시다, 내려가서 산책합시다." 대경 시민들에게 호수 유람이란 어쩌면 식사후 집문을 나서 호수가에서 바람을 쐬면서 소화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다.

초저녁, 하늘의 뭇별이 호수 우에 쏟아져 내린다. 도시의 네온싸인이 호수를 비추고 고즈넉함이 물결과 시간속에 출렁인다.

■ 생태도시 ■

석유도시인 대경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원유 뽐프잭외에는 기름 한방울 보이지 않는다. 시야에 안겨오는 건 온통 울창한 숲이고 꽃향기가 코를 찌른다. 이곳의 삼림면적은 27만 5,333헥타르이고 도시지역 1인당 평균 록지면적은 15.4평방메터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시에는 습지도 있다. 대경은 중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도시 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룡봉습지를 유유자적 거니노라면 학의 울음소리 정답고 꽃향기 그윽하다. 습지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 석유도시 · 관광도시 ■

철인왕진희기념관, 대경석유과학기술관, 대경유전력사진렬관, 대경석유관…

철인정신의 발상지 대경에는 도시 유전자에 철인정신이 깊숙이 새겨져 있다. 력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들은 대경의 관광과 력사를 효률적으로 융합하는 데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다.

첫 유정, 송료평원의 세번째 유정, 체험과 정감이 있는 옛 공업기지는 '공업관광'과 '수학려행'을 발전시키고 있다.

'석유'경제와 '관광'경제의 융합 발전은 대경의 전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한층 더 활성화시켰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대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광 보물단지가 많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소와 양이 풀을 뜯고 있다. 이곳도 의심할 나위 없이 대경이다. 두얼보터몽골족자치현의 푸르른 초원에서 우리는 초원축구와 초원양궁, 초원배구를 체험할 수 있으며 몽골족의 민속과 풍습을 체험할 수 있다.

드리프트, 오토바이 묘기… 스릴 넘치는 자동차·오토바이 경주가 번갈아 열린다. 관중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기에 출전할 기회도 있다.

대경 레이싱타운(赛车城)은 중국 최초 자동차 경주 테마 특화 마을이다. F급 서킷(赛道), 단거리 서킷, 크로스컨트리(越野) 서킷을 갖추고 있고 카팅 서킷, 드리프트 서킷, 빙설 서킷 등 11개의 전문 서킷이 있다.

대경유전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은 이곳에서 피서를 즐긴다.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고 초원, 호수가 또는 나무그늘 아래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바비큐를 먹고 풍경을 감상하고 멍을 때리며 자연과 벗한다.

갈대가 우거지고 갈매기가 떼를 짓고 바비큐 향기가 풍긴다. 습지 캠핑은 대경 관광의 새로운 명함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신화넷